

|                                                                                                                                                                                                                                                                                         |      |                                   |                                   |             |
|-----------------------------------------------------------------------------------------------------------------------------------------------------------------------------------------------------------------------------------------------------------------------------------------|------|-----------------------------------|-----------------------------------|-------------|
|  <div><div>천주교 서울대교구</div><div>구로3동 성당</div><div>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div></div> <div>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a href="http://www.guro3cc.com">www.guro3cc.com</a><br/>☎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div> | 미사시간 | 주일                                |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             |
|                                                                                                                                                                                                                                                                                         |      |                                   | 06:30 (새벽),                       | 10:30 (교 중) |
|                                                                                                                                                                                                                                                                                         |      |                                   | 10:00 (중·고등부 소성전)                 | 12:00 ( 낮 ) |
|                                                                                                                                                                                                                                                                                         |      |                                   | 19:00 (청 년)                       |             |
|                                                                                                                                                                                                                                                                                         | 평 일  |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                                   |             |
| 예비자 교리                                                                                                                                                                                                                                                                                  |      |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                                   |             |
| 유 아 세 례                                                                                                                                                                                                                                                                                 |      |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                                   |             |
| 연령회 회장                                                                                                                                                                                                                                                                                  |      |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             |

## ◎ 모임

| 단체명         | 일시              | 장소  |
|-------------|-----------------|-----|
| 위령봉사회       | 7월 07일(일) 11:40 | 강당  |
| M.E.        | 7월 07일(일) 11:50 | 6교실 |
| 우리어머니 Cu.   | 7월 14일(일) 11:40 | 식당  |
| 사도들의 모후 Cu. | 7월 14일(일) 12:00 | 강당  |

## ◎ 전례교육 안내

- 일시 및 장소 : 7월 7일(일), 오후1시, 강당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관심 있으신 신자
- 강사 : 백승준 시몬 주임신부님

## ◎ 유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제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오 5,14)
- 일시 : 7월 20일(토)~21일(일), 1박 2일
- 장소 : 강화도
- 대상 : 6세~12세 어린이
- 문의 : 최웅석 교감(010-5473-9476)

##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제 : “Have Courage!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 일시 : 7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 장소 : 느티나무 학교(충북 단양군)
- 대상 : 중고등부 전 학생(초6~고3)
- 참가비 : 85,000원(접수 후 환불 불가)
- 대상 : 중고등부 전 학생(초6~고3)
- 문의 : 이소율 마리스텔라(010-9216-5658)

## ◎ 어린이 신입복사 입단식

- 일시 : 7월 14일(일), 교중미사 중(10시 30분)
- 대상 : 7명
- \* 새로 시작하는 어린이 복사들을 위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알림

- 7월 병자 영성체는 7월12일(금)에 있습니다.
- 7월 17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 다음 주일(7/1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      |          |    |      |
|------|----------|----|------|
| 국수잔치 | 7, 8월 없음 | 청소 | 16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6월 26일 ~ 7월 02일)

- 교무금 ..... 9,400,000원
- 주일헌금 ..... 4,521,000원
- 교황 주일 2차헌금 ..... 2,036,000원

정영자 1만원 유영숙10만원 이은용10만원  
김이용10만원 황선아25만원 이길자10만원  
박영숙10만원 이형순 5만원 심점순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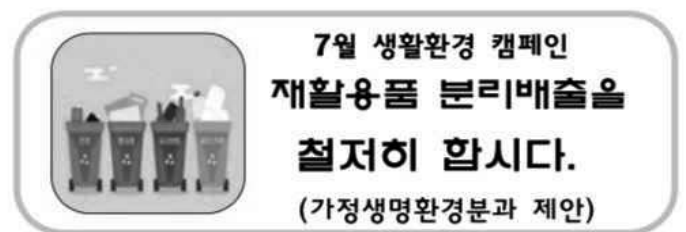
- 감사헌금 최윤순10만원 임맹진30만원 김승하10만원  
박상덕50만원 김화O20만원 김OO30만원  
김OO10만원 조OO 5만원 익명 5만원  
5지역국수잔치 20만원

##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 월 일  | 해 설 | 복 사 |     | 독 서 |     |
|------|-----|-----|-----|-----|-----|
| 7/07 | 이인옥 | 오성환 | 도현만 | 임종윤 | 구민서 |
| 7/14 | 구민서 | 조흥환 | 김영균 | 하재민 | 정연희 |

## ◎ 성체 분배자 명단

| 월일   | 토요일 | 주일  | 06:30 | 10:30 |     |     | 12:00 |
|------|-----|-----|-------|-------|-----|-----|-------|
| 7/07 | 이운영 | 이화봉 | 최영만   | 최석준   | 최승일 | 장인홍 |       |
| 7/14 | 최창렬 | 하재민 | 황태영   | 김광수   | 김영배 | 김인기 |       |



성가번호 ♪ 입당 : 66 ♪ 예물준비 : 511, 512 ♪ 영성체 : 504, 503 ♪ 파견 : 478



저희는 주하느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08. 또 다른 문화적 패러다임을 장려하고 기술을 단지 도구로만 이용한다는 개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 매우 강력해져서 이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 논리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술과 그에 드는 비용, 세계화하고 획일화하는 그 힘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생활 양식의 선택은 반문화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기술은 모든 것을 그 엄격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을 지닌 이들은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기술의 동기인 권력이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과 인간 본성의 본래 요소들을 모두 움켜잡니다.” 그래서 개인의 결단력, 온전한 자유, 고유한 창조성을 위한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109.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또한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경제는 이윤을 목적으로 모든 기술 발전을 받아들이며 인간에게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금융은 실물 경제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세계 금융 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고, 환경 훼손에서는 너무 더디게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집단은 현대 경제와 기술이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또한 비전문적인 언어를 동원하여 전 세계 기아와 빈곤이 단순히 시장의 성장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그 누구도 감히 옹호하지 않는 특정 경제 이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제를 기능하게 하는 실제적 운용만을 중시합니다. 그 이론들을 그들이 말로는 지지하지 않을지 몰라도, 더 균형 잡힌 수준의 생산, 더 나은 부의 분배, 환경과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한 배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그 이론들을 지지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들에게는 이윤 극대화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온전한 인간 발전과 사회 통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비인간적인 박탈 현상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대비되는 낭비적이고 소비 중심적인 일종의 ‘초발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난한 이들이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경제 제도와 사회 계획의 개발은 너무 더딥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는 기술과 경제 성장의 방향, 목적, 의미, 사회적 맥락과 관련됩니다.